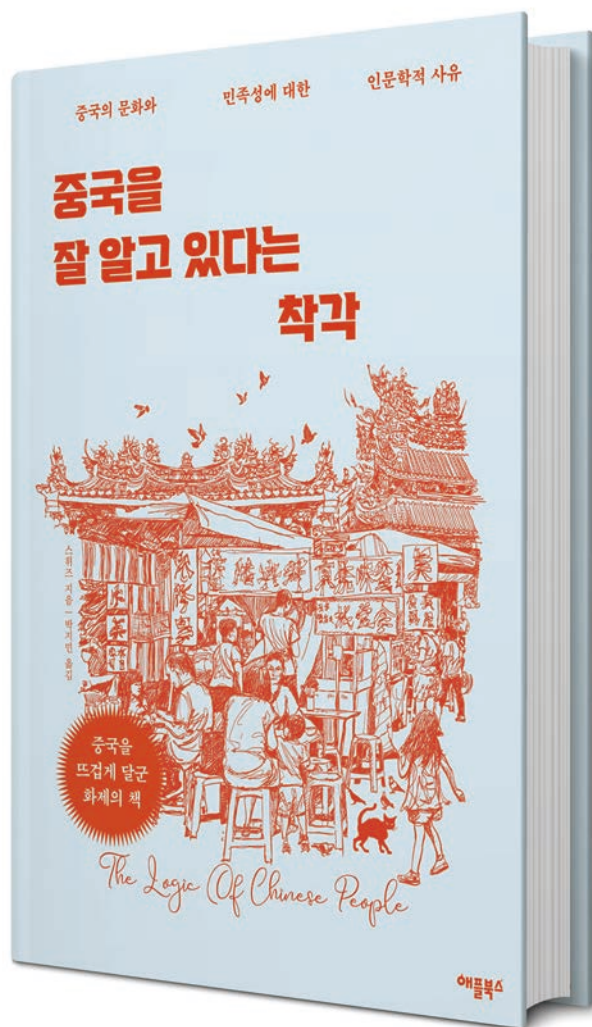


## 책으로 세상을 읽다

# 중국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럴까?

## 『중국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글. 이하민 북칼럼니스트 / 前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문상상프로젝트 기자



『중국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 스위즈 지음, 2021, 개정판 / 출처 : YES24

현재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단순히 정부 사이의 외교적 갈등을 넘어 전체 국민으로까지 반목이 확산하고 있기에 더욱 우려스럽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지난 2월에 열렸던 베이징 올림픽이다. 특히 쇼트트랙 경기에서 석연치 않은 심판 판정이 나오자 중국을 향한 한국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중국 국민 역시 한국 선수와 한국인을 향해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특히 2030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이른바 ‘혐중’ 정서가 급속히 확산됐다.

한국이 특히 분노했던 지점은 중국의 국수주의적 태도와 불공정성이었다. 중국인의 이런 태도에 관해 우리는 보통 ‘공산주의’, ‘독재주의’ 등으로 상징되는 ‘체제’로부터 그 원인을 찾는다.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적이며, 독단적인 체제가 중국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와는 조금 다른 시각도 있다. 중국의 인문학자인 스위즈는 오늘날 중국인의 행동과 태도를 오랜 역



베이징 올림픽 당시 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던 쇼트트랙 경기

사를 통해 축적된 민족성에서 찾았다. 그는 지난 2016년 이런 내용을 담아 『중국을 잘 알고 있다는 착각』(2021, 개정판)이라는 책을 썼다. 저자는 미국, 홍콩, 싱가포르, 유럽 등을 두루 다니며 세계 각지의 중국인이 가진 공통점들을 발견했다. 다양한 체제 속에서도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것은 결국 그들만의 고유한 민족적 사고가 있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중국인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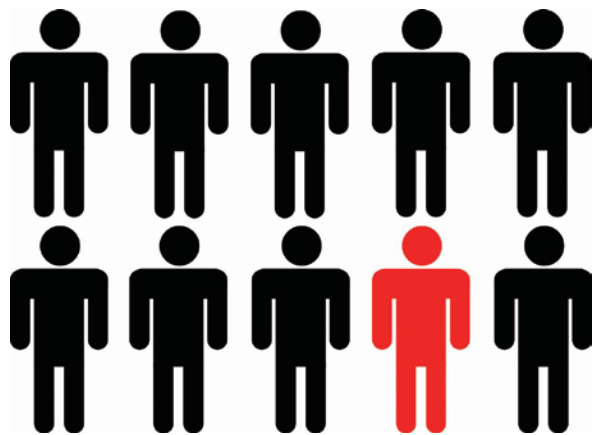
### 줄거리 - 중국인은 ‘왜’ 그럴까?

이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여러 방면으로 중국인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1~4장은 중국인의 기본적 사고방식과 논리 체계를, 5~10장까지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삶의 태도에 초점을 맞췄다. 여기서는 편의를 위해 ‘전반부’(1~4장)와 ‘후반부’(5~10장)로 나누겠다. 전반부의 핵심은 중국인의 언어, 사람, 사물에 관한 사고방식이다. 중국인은 언어에 신비한 힘이 있다고 믿는다. 그래서 표어, 구호 등이 도시 곳곳에 넘쳐나고, 글씨를 장식품으로 걸어두는 서예가 발달했다. 언어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는 이들의 문자인 ‘한자’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한자는 글자 자체에 의미가 내포된 ‘표의문자’다. 그래서 글자를 쓰는 행위만으로도 특별한 힘이 생긴다고 믿는다.



예로부터 시적 사고가 발달했던 중국은 이백, 소동파 등 걸출한 시인을 다수 배출했다

한자의 또 다른 특징은 기호화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중국인은 수학, 과학을 발달시키지 못했다. 수학은 기호를 활용한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물에 대한 관찰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인은 시적 사고 및 감성적 사고가 발달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직관적으로 반응한다. 반면, 사물에 의문을 품거나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는 논리적 사고는 부족했다. 저자는 이것



‘같은’을 추구하는 중국 사회에서 ‘다름’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외롭다  
/ 출처 : Pixabay

이 오늘날 중국의 과학 기술이 세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이며, 수학적 사고가 부족해 중국인들이 자꾸 도박에 빠지는 원인이라 지적했다.

중국인은 ‘같은’을 선호한다. 통일, 일치되는 것을 좋아하고, 일반적이지 않거나 튀는 사람을 참지 못한다. 사회의 보편적인 기준과 다른 사람은 정신이 병들었다고 여긴다. 저자는 모든 사람을 같게 만드는 유교식 교육 방법이 이런 인식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개성이 강한 사람들은 중국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어렵게 되었다. 중국인들은 삶의 가치에서 안전성을 가장 중시하며 모험을 하지 않는다. 무언가 창의적인 시도가 없다 보니 그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도 저조하다. 이 역시 같음을 선호하는 태도에 기반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후반부에서는 권위, 짝퉁, 물질주의, 연고주의, 체면, 공정 등 다양한 가치에 대한 중국인의 태도를 다루고 있다. 중국인은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상급자나 권위자의 말은 무조건 옳다는 인식이 중국 사람들 기저에 깔려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발언권을 얻고자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 하며, 각종 공식행사에서는 어김없이 고위 관료나 정치인이 축사를 한다. 권위와 질서에 대한 존중은 삶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중국인의 사고를 반영하는데, 이는 연고주의와도 깊은 관련이 있다. 중국인은 반드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일하려고 한다. 그중에서도 혈연, 학연, 지연을 가장 신뢰한다.



중국인은 권위와 질서에 복종해야 사회가 편안해진다고 생각했다 / 출처 : Pixabay

돈을 중시하는 중국인의 사고는 결과주의적 태도와 결합하여 짝퉁과 가짜를 만들어냈다. 이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최소 비용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내기만 하면 모든 게 허용된다. 이런 사고는 체면에도 반영돼,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라면 짝퉁을 사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들에게 체면은 목숨만큼 중요하다. 또한 개인의 욕망 달성을 위한 연고주의와 의리를 추구하는 중국인의 습성은 많은 불공정을 초래했다. 저자는 오늘날 중국인의 가치관과 태도가 민주주의, 과학기술 등 건전한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우려한다.

### 무엇이 오늘의 중국인을 만들었는가?

이 책은 중국인의 부정적인 면들만 조목조목 열거해 지적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다른 학자도 아닌 중국 출신의 학자가 썼다는 점이 놀랍다. 서두에 언급했듯이 저자는 언어, 문법, 역사, 문학 등을 두루 연구한 인문학자다. 중국인의 사고의 저변에 깔린 오랜 역사와 문화를 깊이 파고들었다. 중국인은 자신들이 보유한 수천 년의 역사를 매우 자랑스러워하



시진핑은 장기 집권을 위해 중국인의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베네딕트 앤더슨과 그의 저서『상상된 공동체』(1983) / 출처 : YES24



는 민족이다. 저자는 그런 역사로부터 초래된 부정적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책을 출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다. 실제로도 책이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큰 이슈가 됐다.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선언하고 자국민의 민족주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나름 큰 의미가 있다. 저자는 제도장치 없이 ‘국가’만 보고 달려 나가는 민중들을 향해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

저자는 책 전반을 관통하는 개념으로 ‘민족성’을 내세웠다. 그는 민족마다 각기 다른 사고 특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는 민족이 가진 고유한 자연환경, 역사 및 문화적 배경이다. 특히 저자는 지속해서 중국인과 서양인을 대척점으로 설정하여 양자가 갖고 있는 사고의 차이를 비교한다. 예컨대 중국인은 사물을 관찰할 때 ‘감정적’인 사고를 하지만, 서양인은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식이다. 요즘에는 ‘민족’이라는 개념이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주장이 대두된다. 대표적인 학자가 베네딕트 앤더슨이다. 그의 유명한 저서 『상상된 공동체』(1983)에 따르면 ‘민족’은

근대 국가에서 국민을 통합시킬 새로운 장치로 고안된 ‘문화적 산물’이다. 인위적인 개념이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인 스위즈 교수는 민족이 실체적으로 존재한다는 전통적 관점을 견지하는 듯하다. 이는 “같은 민족에 속하는 개인들은 공통의 역사 문화 배경을 갖고, 비슷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다”(4쪽)라는 대목에서 알 수 있다. 전통적인 ‘민족’ 개념 정의와 거의 비슷하다. 저자의 분석 틀이 다소 오래됐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나 서양과 동양은 분명 상이한 역사와 문화, 사회 환경을 갖고 있다. 이를 염두에 두면 저자의 논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책에 따르면, 오늘날 중국인의 사고방식을 만든 것은 8할이 ‘유교’다. 저자는 공자로 대표되는 유교 사상을 지속해서 제기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중국인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한다. 그는 질서를 강조하는 유교 문화로 인해 사람들이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심지어 유교는 논리적 체계가 부족한 ‘억지 비교’ 형식이 많아, 중국인의 비과학적 태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기도 한다. 공자를 숭상하는 중국 문화를 고려할 때, 꽤 과감한 주장이다. 유교는 도덕과 사랑을 바탕으로 선을 행할 것을 강조하는,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사상 중 하나다. 서구권에서도 이를 주목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런 외피에 가려진 유교의 비과학적, 비논리적, 비주체적인 면들을 예리하게 들춰내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오랜 기간 동아시아를 지배했던 ‘유교’라는 사상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최근 한국에서 ‘도대체 중국인은 왜 저러는가, 우리는 중국인과는 다르다’라는 인식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유되는 듯하다. 필자도 그간 중국의 행태를 보며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이 많았다. 그런데 이 책에서 드러난 중국인의 사고방식이 한국인의 그것과 꽤 겹친다는 걸 발견했다. 예컨대 혈연, 학연, 지연 등 연줄을 중시하고, 체면을 지나치게 신경 써 겸손한 ‘척’을 한다는 대목이 그렇다. 또한 ‘갈음’을 강조하여 유별나게 튀거나 독특한 사람을 불편해하는 경향도 한국인과 비슷하다. 아마도 둘 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온 것이 그 원인으로 보인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보다는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래도 이웃 나라는 이웃 나라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다. 앞으로 양 국민이 서로를 좀 더



유교의 창시자 공자(B.C. 551 ~ B.C. 479) / 출처 : 위키피디아

이해하고자 노력한다면, 지금의 갈등을 풀어갈 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저자는 논지를 전개해가는 과정에서 이분법적 논리를 자주 사용한다.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 앞서도 잠시 언급했던 중국과 서양의 비교다. 주로 서양인들이 가진 사고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중국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방식이다. 이는 중국인의 사고가 가진 문제점을 좀 더 명확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분법은 사안을 지나치게 양극화하여 오히려 왜곡할 수도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책에서도 그런 점이 몇몇 눈에 띈다. 저자는 “서양인이 창조를 지향하는 데 반해, 중국인은 모방만 추구하여 창의력이 떨어졌다”(66쪽)고 비판한다. 그런데 과연 모방이 창조의 적이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 오히려 순수한 창조는 있을 수 없으며, 모방의 축적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이 탄생한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많다. 실제로 중국은 과거 다른 나라의 게임 콘텐츠를 베끼기만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게임 산업을



양국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 출처 : Pixabay

주도하고 있지 않은가. ‘중국’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아래 상황을 적용하다 보니, 이런 왜곡이 발생한 것이다. 자칫하면 서양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치명적 오류도 범할 수 있다. 저자는 “재외 중국인은 백인 주류 사회를 동경하지만, 서양인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한다”라고 했다. 이 역시 논란의 여지가 다분하다. 과연 서양인이 동양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있는가? 철저히 따져봐야 할 문제다. 저자가 조금만 더 유연한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우리는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책 말미에서 저자는 중국인의 ‘불공정성’을 언급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년들이 중국에 대해 가장 분노하는 점도 바로 이 공정 문제다. 최근 2~3년 동안 한국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른 쟁점이 바로 ‘공정’이었다. 남의 문화를 마음대로 빼앗고, 편파 판정으로 승리를 챙겨가는 중국의 불공정을 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결론이나 다름없는 마지막 부분에 저자가 공정 가치를 거론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양국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공유해야 할 새로운 가치가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특히 저자는 불공정성이 중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비판했다. 이는 달리 말해 공정 가치가 곧 민주주의와도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인과 중국인이 ‘공정’과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중국은 비민주적인 정치구조도 시급히 개혁해야 하지만 말이다.

책은 각 장마다 “중국인은 왜 ~하는가?”라는 물음을 던진다. 하나같이 우리가 매우 궁금해하던 것들이었다. 저자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듯 시원하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해준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 너무나 무지했음도 반성하게 된다. 책 제목처럼 ‘중국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있던 것이다. 지금의 국내 반중정서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일방적인 인종 혐오에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돼서는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가린다. 서로의 감정만 크게 상할 뿐이다. 따라서 뭐라도 비판을 하기에 앞서 상대를 더 깊이 파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면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해결방안도 떠올릴 수 있다. 이 책이 그 지침서가 됐으면 좋겠다. 